



파리바게뜨, 9월 이달의 제품 '밤 소보루 맘모스' 선정

SPC 파리바게뜨가 9월 이달의 제품으로 '밤 소보루 맘모스'를 선정했다. 매월 초 '이달의 제품'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을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밤 소보루 맘모스'는 고소하고 달콤한 소보루빵 속에 밤, 팔랑귀, 연유크림을 얹어 담았다. 특히 밤과 팔 등 가을을 상징하는 재료를 활용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시장 변화 오나

애플페이 도입, 이번엔 진짜?...삼성페이 '긴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올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의 협상 당사자로 알려진 현대카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애플페이 도입을 기다려 온 '아이폰' 충성 고객들이 많고, 국내 간편결제 및 카드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소비자들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카드, 애플페이와 협상 알려져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 없다" 일축
도입 땀 NFC 가맹점부터 서비스
시장 장악한 삼성전자와 경쟁 전망



연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사용자들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출처 | 애플

●NFC 활용 결제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애플과 1년 간 애플페이의 국내 독점 서비스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이와 관련해 "애플페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애플페이 도입이 확정될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NFC)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갖춘 가맹점을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사용자들은 실물 카드 없이도 NFC 단말기에 아이폰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애플이 국내 진출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페이가 NFC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NFC를 지원

하지 않으면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NFC 단말기가 많이 보급됐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보급률이 낮다.

반면 삼성페이는 NFC와 MST(마그네틱보안전송) 기술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NFC 호환 단말기가 없어도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삼성페이와 경쟁 치열할 듯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대형가맹점 위주로 시범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경우 애플페이 전용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 도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전용 카드를 만든 고객에게 연회비 캐시백, 애플 제품 구매 시 청구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등을 상품으로 내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계약을 맺을 경우 현재 4위에 머물러 있는 현대카드의 시장점유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아이폰 충성 고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난 1분기 애플(아이폰)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2%다. 특히 주요 소비층인 MZ세대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기존 국내 사업주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현재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삼성페이'와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다만, NFC 단말기 보급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단기간에 NFC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집중호우가 쏟아진 6일 오전 7시1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침수와 정전피해로 모든 고로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하루 400억 규모 매출 손실 불가피

태풍 '한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포스코가 '모든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로 인해 포스코가 하루 4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볼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전체 3개 고로가 현재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하루 전 폭우로 제철소 내 대부분 지역이 침수됐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 침수가 심각해 포스코 측에서는 고로 재가동 시점을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고로가 동시에 가동 중단에 들어간 것은 포항제철소가 첫물을 뽑아낸 지난 49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포항제철소는 총 4개 고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고로는 노후화로 이미 사용 중단 상태여서 2·3·4고로만 운영해왔다.

이번 고로 가동 중단은 포스코의 막대한 손실로 직결될 전망이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포항제철소의 연간 조강(첫물) 생산량은 1500만 톤 정도로 하루로 보면 4만 톤 가량"이라며 "최근 첫물 가격이 톤 당 1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하루에 400억 원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가동 재개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것도 포스코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 내부에선 고로 재가동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달(30일) 만에 고로가 재가동 된다고 가정해도 포스코 매출 손실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포스코 매출액(76조3000억 원)의 1.5%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 3기는 피해가 없었으나 일시적 가동 중단(휴공) 중"이라며 "전기공급 회복 시 정상 가동 예정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열연 라인 등 제품 생산 공정 복구 시점은 미정이나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

'보름달 캡슐'부터 '송편주머니'까지... 'LoL'에도 한가위가 가득

18일까지 '한가위에는' 이벤트 진행
기왓장 캡슐 등 한국형 아이템 공개
한가위 즐기는 LoL 챔피언 영상도

한국 지역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온 라이엇게임즈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추석의 맞아 기왓장 캡슐부터 송편 주머니까지 다양한 한국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한가위에는 행복이 한가득' 이벤트에는 한국적 요소가 담겨있다. 이벤트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아이템의 이름은 '보름달 캡슐', '송편 주머니' 등 한가위를 상징하는 단어다. 또 끈으로 묶은 송편과 기왓장 캡슐에 담긴 보름달 등 한국적 색깔이 묻어나는 이미지로 아이템을 표현했다. 이벤트를 알리는 특별 영상에도 한가위를 즐기는 LoL 챔피언들의 일상이 담겼다.

이벤트는 '꿀잼 티모', '요릭냥이' 등 LoL에 존재하는 140개의 서사급 스킨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썩썩! 대박 반값 할인'과 이벤트 기간 중 토스 간편결제 RP(게임 캐시)를 충전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토스 간편결제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한정 상품인 보름달 캡슐은 무작위 스



한국을 대표하는 LoL 챔피언 '아리'(위)와 한가위를 즐기는 챔피언들의 일상을 담은 이벤트 소개 영상.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킨 파편 3개로 구성됐으며, 세트를 구매하면 신화 정수 5개를 확정 획득하고 4% 확률로 '송편 주머니'까지 얻을 수 있다. 송편 주머니는 음식 또는 축제에 관한 스킨 파편 3개를 확정 지급하며, 70% 확률로 750RP 이상 스킨 파편 2개

또는 30% 확률로 750RP 이상 스킨 파편 3개를 획득할 수 있는 무작위 보너스가 포함된 스페셜 아이템이다.

이벤트 기간 중 RP를 사용한 플레이 어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한가위 포로 상점'은 RP 사용 시 주어지는 '보름달'

을 활용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플레이어들은 포로 굿즈 세트 등에 응모하거나, 함께 즐겨요! 감정표현, 명품 상자(1개), 스킨 파편(1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 특색 살린 콘텐츠 가득

LoL은 2011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뒤 한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89번째 챔피언 '아리'가 대표적인 예다. 아리는 '한복 아리' 등 한국 문화 요소를 담은 스킨은 물론 구미호 설화와 유사한 배경도 갖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으로 꼽힌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아리 출시 10주년을 맞아 '아리 랑 생일 파티!' 이벤트도 진행했다. 한국의 PC방 문화를 활용한 이벤트도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별 수호자 PC방 강립'이다. PC방에서 플레이하면 시간에 따라 무작위 온전한 스킨, 신화 정수 10개 등을 지급했다.

한국적 색깔을 담아낸 스킨도 있다. 한복을 입은 '신바람 달 사코'는 태극 무늬가 새겨진 무기와 코스튬을 착용한 스킨이며, 2017년 '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 우승팀을 위해 만든 '삼성 갤럭시 스킨' 시리즈에는 해대 동상을 던지는 '나르'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착용하는 복두를 쓴 '자야' 등이 포함됐다.

김명근 기자

'모노플렉스', 新스크린 문화 선보여
호텔·카페 등에 맞춤형 영화관 제공

석민철 대표

알엔알의 모노플렉스가 주목받고 있다.

공간 제약 없이, 멀티플렉스에서 상영 중인 동일한 개봉작을 볼 수 있도록 상영관에 대한 설계와 시공, 음향 등 모든 시설을 할리우드 표준에 맞춰 세팅하고 여기에 영화 배급사와의 계약 및 정산, 영화진흥위원회 리포팅까지 대행하는 원스탑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

운영주는 청소와 관객 입출입만 체크하면 돼 편리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다. 최근 고령 트렌드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친구, 가족, 소규모 지인 모임을 만들어 관람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공간가치를 추구하는 모노플렉스 인기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화관을 직접 짓지는 않지만 공간 파트너의 공간을 활용해 글로벌 상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에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공간가치와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모노플렉스가 추구하는 비전이다.

석민철 알엔알 대표는 "개봉작 영화가 가지는 파급력에 더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모노플렉스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기존 영화관을 넘어 호텔, 레스토랑, 카페, 복합문화공간, 루프탑, 자동차극장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해당 공간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채롭고 유니크한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10여 개 국가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글로벌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